

李 明 植

新約聖經
고린도 교회의 유래
고린도 전서講義 (3)

聖經要理問答

總會治理局提供

監理會事業計畫樹立

農村과 교육에 注力

世界圖書公司總發行

전서講義 (3)

그리스도라」고 전도 하는일에
만 주려하게 되었던 것인데
유대인 동족들의 꾀방을 받았
다. 바울은 동족의 회개와 열
심을 보았으나

문을 행하시나니라.
행三〇二十一, 二十二
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

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
 자의 직분을 행하시나뇨.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
 분을 행하시는것은 그 말씀
 과 성신으로 말대아마 우
 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에게
 깨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십이나라.
 요 1018 바 1 전 10
 12 15 15 10 15

성이 많을이라" 하는 격려를 받고 용기를 더 하여 고린도 서 보는바와 같이 좋은 교회를 세웠다. (골로 1:10) 교회를 세우는 일은 바와 같이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해산의 수고를 한 바울을 근심스럽게 하는 교

작본을 행하시나뇨.
그리스도께서 왕의 작본을
답, 그리스도의 나저지신 것은
여인에게서 나셨으니 그

고 우리를 다 사려 모호하
시며 밋 우리의 모든 원
수를 금지하고 이기시나 나
라

사백〇十三 합十五〇
十四

사三十三〇二十二
사三十二〇一、二 행十八
〇九、十

표전十五〇二十五

二七

그리스도의 나 자신 것이

남과 하나님의 진노하신과
심자가와 저주한 사망을
받으시고 못치사 사망의권
세 아래 열마동한 거하신
것이나라.

누이〇七
팔四〇四
히十二〇二十三 사五十三
〇一一、三
누二十二〇四十四

四牌의 바랍크시 임서희양을
가가 가정에 서 애배들 드리
「형님 형님 형님은 이제 처
당으로 왔읍니다 나노 형

남보라 선교사부부의애 배
 씨었다 심하 공부들 하
 이 말을 들은 동석이는
 「나도 우리 형님 가신 천

회애 전일하고 역시 신학생
김영찬씨와 다른 장로 집
들의 협력으로 일월二十일
을식을 거행 하도록 노력하였
이남은 카나다 장로 교회
우 카메론 박사가 참석하였
재일본 한국인 선교二十五
년을 현당식 이라는대 더욱
의가 되었다

하고 두팔을 들면서
『우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것처럼 나도 십자가
나 도 양으로 좋은 반을배
기 자! 쏘아라』하니
『야 이놈은 그 형보다 더
지독한 놀이도 구나 이놈을
그냥 못두겠구나 자 총살하
자』하였다.

이소리들 들은 독신이는 두손
을 십자가 처럼 벌여놓고
『야바지여 이 사탄들의 혀를

양생관은 이런 순교를 하고도 남았으리라고 속지에서 믿고 감사 하였읍니다. 마는 인침의 도야... 하면서 말을 못 게

두겠읍니다? 나 역시 인간
들이 불신앙의 죄로 지옥

하지 않고 속는 사람들을 내
어찌 방관하겠습니까? 하
나. 모다들영! 영! 하고 울
었다. 손목사는 다시 말한 게
속였다.

「또 저사람들이 다른 민족
이래로 구원하여 내어야 할
덕인데 동족임이라 했을니까
관공상사는 민족의 비참이요
국가와 일대 비국 일이다.

傳導邊區의 苦言

李鐘聲

일본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에 비요하여 놀랄만한 차도가

世界統一工課
(2)

第六課
二月十日

[illegible]

農村과 교육에 注力

리물	구원하시기로	우리의	사내
게 하나	님의	뜻을	나타내
심이나.			
요 一〇十八	베 一〇		
十二 五十五〇十五			
		히 九〇十四	二十八
		히 二〇十七	
		히 七〇二十四	二十五
		二六	

世界聖書公會總會開催

환	위하여	유형기	엄폐회	변	홍규	김광우	아패설라	씨등을	부
신	소—싸워	장세환	장명원	김정	위원	으로	선출조직	하고	
창	문창모	방창현	이	구사업을	추진케	되었다.			

傳導邊區의 苦言

○九、十
요전十五〇二十五
二七
그리스도의
나저지신것이

世界新工業

자! 하였다.
이소리를 들은 동산이는
반 싹자가 처럼 날으로 들고
「아박조」 이시암의 화을
판악상사는 민족의 비참이요
국가와 일대 비극 일이다.

復興再建專委組織

[illegible]

共產捕虜信仰生活

收容所教會一萬名超過

五地方教勢發展

물만 아니라 감리교는 이
관으로 정적이남에 그
확장하게 되었는데 이번
미 북한공산군 포로가
의제에 참석하고 있다한
의제와 유리적 표준을
만들어서 있다. 나의 가
머려운 일흔이 포로들에
사회할 따름이나
모다 자진하여 예배에
참석

에 새로 지방회 다섯

은파 같이 감리사를 임명한다.
대구지방 조윤수 감리사
부산지방 변홍기 감리사
마산지방 짐창호 감리사
오남선지방 전라지방파 중
호남선지방은 전라지방이라 하고 전
도남호남선지방이라 하고 전
남북도를 전라지방이라 하였
다.
새벽 기독교가 표회전통의 모
든 활동에 참고 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전적으로 포로들만을 마티보
는 종교목사 「하름드 배」 씨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배는 비교파적 이다. 기
도는 주로 포로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하에서 대부분의 그들은 개인
의 존엄성이 없는 대중으로서
만 생각하여 왔던 것이다. 이 포
로들에게 종교적 활동은一年
전부터 十三년간의 육군생활을
한 미군 군대목사 「대보」
대령에 의하여 시작 되었다.
「우리는 이 수용소를 빈주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다만 도구를 주고
포로들이 인간으로서 그 자
내에 믿음과 배양할것을
할 따름이다」



教會學校
教師講座

教會學校教案

노
안
리

나 되는 행인들이 머물러서 사람을 살피보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교사의 취미 내지 정열의 대상이 그 학생이면 그에게 숨어 있는 것을 많이 본 것이고 또 드물것	알고 무었을 개발할 것인가? 판심 있고만 있었으면 시간인 것이지 걸려서 못하는 일은 아니다. 어떤 과학자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는 뉴욕시의 제일 분주한 구역에서 제분주한 때에 친구와 같이 온 적이 있었다. 갑자기 그는 길 밑주고 「가만있어 저기 델렸다. 그리하였더니 실외영이	내적으로는 공동생활 철학한 중립동우를 그라고 있는 자 등도 그학생을 아는데 좋은 표가 된다. 평소애 주의심이 많 관심을 가진 교사라면 이 을 쉬 발견할 것이다 판심을 알고 무었을 개발할 것인가? 판심 있고만 있었으면 시간인 것이지 걸려서 못하는 일은 아니다. 어떤 과학자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는 뉴욕시의 제일 분주한 구역에서 제분주한 때에 친구와 같이 온 적이 있었다. 갑자기 그는 길 밑주고 「가만있어 저기 델렸다. 그리하였더니 실외영이	나 되는 행인들이 머물러서 사람을 살피보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교사의 취미 내지 정열의 대상이 그 학생이면 그에게 숨어 있는 것을 많이 본 것이고 또 드물것	학도를 학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나 학생과 적 접사과며 같이 걸으며 이야기 하며 놀기도 하고 도설이나 다른 곳에서 같이 공부도하고 또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하며 하이킹도 하는등 이 모든 것 들중하야 학생을 이해할수 있 어 든다. 정숙이란 아이가	출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각 학생을 연구 하여야한다. 교사는 자기와 임학생의 성격을 저울수 있어 하는 것이다. 학생의 성격 알려주는 무엇들 발견하 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록해 대로	출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각 학생을 연구 하여야한다. 교사는 자기와 임학생의 성격을 저울수 있어 하는 것이다. 학생의 성격 알려주는 무엇들 발견하 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록해 대로	출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각 학생을 연구 하여야한다. 교사는 자기와 임학생의 성격을 저울수 있어 하는 것이다. 학생의 성격 알려주는 무엇들 발견하 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록해 대로
---	--	---	---	---	---	---	---

기 쉬운 성품이 있는 것을 말
하는 것이니 그가 평소 애 남
모르는 불만에 잠겨있는 것
이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일 두 주일 지도의 자료가 될
후에 모은 자료를 전부 종합
하여서 그 사람의 생활의 대
기를 달리 기록하던지 혹은 편
집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형식
적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아주 쉬운 것이요 또
효가 큰 것이다.

명 그의 요구 같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알지
한 면을 잡게게 하는 것은
의 취질을 지도하는 것과 또
중요한 일이다. 이 점에
어서 예수께서는 실로 끝없는
신 묘사하셨다. 그는 베도
같이 변하기 쉬운 사람 속
서 바위같은 인간을 보셨고
달라 마리아에게서
은 숨은 힘을 발견할 수 있
은 부도 묘사의 특성인데 총
을 해하는 묘사라면 누구
다 그것을 가지도록 힘써야 하

유행 되는가 보다 전자는
최망에 처한자들이요 후자는
기생충족을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 교계내에는 교용족이
없을까? 교회일이라하
여서는 교회발전보다 전도보다
자기성공의 부덕성을 만족시킬
라고 일을 더 많이 만드려서는
동본사주 하지 않는가?
실로 일본국내의 한국교회는
국도의 불안정한 선으로 거러
가고 있다. 신앙적으로 경제적
으로 사회적으로 복 있을
저이다 임내하는 자들이여

것이 곤난한 것은 자기와
저 하는것을 전부 포기하
하나님만 의지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필요
것이다. 이부자 청년연애
이 재한 가족 지위 명예
식 연인에 도라 갈때 자기
욕심의 애착에 못잡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2) 우리는 다른 한 사람
게오의 일을 배우자. 그는
적은 사람이요 동족에게서
세금을 받아 로마나라에 바
다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
그러나 세리장 까지 하는

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을
 여야 한다. 재산전부를 팔
 았어도 그마음이 오히려
 남남 실패하면 엄청난 손해
 입을수 있고 예수님은 손
 하신다. 우리는 먼저 그
 타와 그외를 구할것이다.
 창표 十八〇十八—三十절 기
 는 마태十九〇十六—三十
 가 十〇十七—三十一에 있
 대조하여 공부하고 성경지
 두리이 하며 다시 읽고 새
 해 있기 바란다.

나는 십년간은 동맹에서
 생애를하다가 작년 봄에 하관표
 회의에 부임하여 겨우十月
 밖에 되지만은 목회자一년
 이자마는 교회생활의 기미한정
 은 그만 두더라도 이교회에
 와서 많은 노력이 있는가운데
 한가지 놀란것은 지방교회의
 정제성 이라는 것이다. 일반은
 회에 있어서도 이지방은 동맹

조국땅에 원망스러운 전란
 이러한수 임시 동안은 가루
 사와 가 유행되더니 요사이
 또다시 동맹이 유행되다.
 국은 이곳에서 유행하는 우
 동포가 조만간에 이땅을 떠
 들었으면 아니될 정경에
 하얗고있으니 아니라의 명수
 나 구경은 하여 보셨다는
 사인줄 알았더니 사실은 지

은 이야기들 쓰고 있는 것
 교사가 보았으면 그점을 기록
 하여볼루에 짐작 남는다. 착원
 이는 신령 파민한 아이어서자
 기는 좋은 사람이 못된다교생
 가하였는데 그것은 그에게유

이상에서 교사가 순박함에
 어서 제일 먼저 할것은 학
 을 아는 일이라는것을 말했
 하였다. 교사는 훌륭한 부
 가 자기와 자녀를 아는것만
 그 학생의 지능 재주 학망의

하여 주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 인도의
 종교의 어류들은 지도자가 없
 으어서 매우 일 모으는 하는 수
 없어서 평신도들이 순번으로
 권면을 하기는 하나 초심비적
 초자연 신학적 아니 명칭조차
 찾지 못할 성경해석을 하며 또
 그것을 뜻고 기독교자의 진리라
 고 믿고 있는 이 사실은 아는 지
 도 모르는지? 종교 석상에서
 구해져 전도받침에는 일주
 무언이 내 조제에 무슨 잔소
 리가 있으리요 마는 그대로
 의지할 곳이 없는 지방교회로서
 는 너무도 답답하니 주전을
 처다보고 곡성을 할뿐이다. 사
 회에도 사악속이라는 말과 사
 영원한 생명의 획득을 바
 누구 인을 확신한 신앙평
 과 낙심 할수 밖에 없었던
 에는 기대와 어그러 지니
 다.

수째서는 이 사탐이 전심전
 기우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는 소유 전부 팔아 가난하
 를 구제하고 나을 따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년 관원은 재
 로 이 세상 생활에 안정과
 락은 누릴수가 있고 도둑
 는 지킬것을 다 지켰으니
 대로 영원한 생명을 획득
 하였던 것이 예수의 만
 퍼 낙심 할수 밖에 없었던

다. 그러나 삭개오는 뜻
않았던 예수할 모시고 줄
자기 심중을 알어 주신 예
앞에 과거를 뒤우셨던 것
자기의 소위 여하가 문제
니라 잘못된 과거가 그
는 고통이 었기때문에 거
을 드러다 보는것 같은 예
의 앞에 솔직히 버어 노안
예수께서는 그 죄를 여하
급 하지지 않으시고 『오
구원이 이집에 이르렀으니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시고 예수께서는 이일에
거위 하시고 인자의 오신
적을 잃어 버린 자를 찾아

한편에서는 수 있다. 그러므로 한편에서는 자와의 관계에 고찰하여 문화와 기독교 사회의 발전은 운운하는 반면 신앙이란 단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또한 한 면에서 볼 때에 가장 적절한 성경해설이 있는 것은 성경을 대인적으로 살피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독일의 가마치 도비성파 같이 생각하게 된 하라고 이러한 독일의 목시독 연구가 유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오히려 높은 생각지 않는다. 이영환은 신교사들의 영혼에는 신학적 사색도 여기

때문에 무슨 어른이 오신다는
소리는 받지 않는 아주까지 그
외 일들은 커녕 그림자도 보
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택도 입어본일이 없다. 어떤
목사는 주야로 총회를 위하여
동서사방을 누른다 하되 중
지방교회는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고향을 찾는것보다 일
한번씩이라도 좋은
방법은 참지겨워 앉았한 관
(1) 어떤 부하고 앉았한 관
청년) 한 사람이 교법사
교존에도 명하지않은 생존제
고민 하여 영생의 방법을
알고져 예수님을 찾아
다.

바리새인중 혹자는 거만한 음으로 예수들 초대 하고	대적 한일은 있으나 누가	개하는 자기의 파오나 알고	인하는 사람으로 예수 잘	이들 모실수 없는줄만 아 를	거집에 예수 말씀에 너무	줄거위 급히 내려와 예수 나	영접 하였던 것이다. 예수 나	마음은 밖에 세상은 사람 을
--------------------------------------	---------------------	-------------------	------------------	-----------------------	------------------	-----------------------	------------------------	-----------------------

후자는 문화적 어태가 있을런지 모르 거두를 하는것과 비교하여서 다	기득과라고 할수있으며 소위 의미한 저자는 이것은 아니 자 는 바이지마 세속문화의 한듯이 삼	한국에서는 농촌과 도시와의 변화도가 없이 선별 법성율이 잔다는것을 따라서 양 경향을 의미한 전자는 소위 학술적이 있을런지 모 른한설에 흔히하여 지 나다 비교하여서	독본은 비교할때 일본에서는 도시를 중심하여 번성하였으 고 번성율이 변화도가 없이 선 별적으로 번성하여져 잔다는것을 알수있다. 이경향은 따라서 양 국의 기독교의 경향을 의미한 다고 볼수있다. 전자는 소위 문화적 기득과라고 할수있으며 후자는 어태가 있을런지 모르 거두를 하는것과 비교하여서
--	--	--	---

[illegible]

있었는 것 같다. 그는 자기
 지위 체면도 생각지 않고
 직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불
 무에 어딘가에 같이 기어
 올라 갔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열정적
 마음의 이러한 열의 기절
 아시고 육자가 길을 잃은
 을 부른 것이 「사개오야 속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
 유러야 하겠다. 이리일은 사

韓國十名參加

오는	十二月에	인도	도라방
코아에서	개최되는	제3회	새
개기독교	청년회의	준비위원회	
의간	지난 十二月三日	목요일	
인도	도라방	코아	
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2) 형의 중심 1) 예수의 복음의 시

(1) 성경연구문제 1) 하나님의 창조

2) 하나님의 피신 (도성인신)

3) 하나님의 구속적 죽음과 부활

4) 교회의 기조되신 예수

5) 천국

參戰者의 差異顯著

(西獨)

의 반성을 요하는바가 있다. 준비위원으로 참가한 나라는 필리핀, 싸이암, 말라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일본, 중국, 영국, 미국, 한국, 필립핀, 인도네시아, 미국,十五명대표에 방정자七명을 합하여 二十二명이 모였었다.

회의는 서둘러표 페레라각수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제목은 '예수'는 문제해당자'라 하고 다섯사람에 나뉘어서 성명연구를 하면서 신앙체계에 입각한 강연을 연구보고 모양으로 하여 문제를 집중시켰다.

이제 각국대에 자기된 문제와 협의제목과 보고강연 제목

(3) 강연주제 1. 창조자 하나님과 현실생활의 의의 2. 유신적의 말슴 3. 십자가와 부활 4. 우리의 천국지린된 5. 예수의 재림

등이었다. 이문제와 연구와 협의가 금년 一년간 세계각국 기독교자 사이에서 논의되고 생활체계에 서 이루어져 오는 十二月 회의에는 그백명의 대표가 모일것인데 그중에 삼분지二는 아시아와 청년으로 이루어 하는것이다.

이회제 한국에서는 열사람의 기독교청년을 파송 하도록 배정되어 있는데 NCO와 WCO에서五명 YM YW에서四명 명 KSO (한국기독교생회)

綴字法統一案 (3)

[illegible]

平和外交로

生產問題課題

의해서 은자 또 한번 시민 중
에서 참가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경험력이 많은 노예회
원들이 지금 이다! 격으로 활
약하고 있다. 전체로서 회원의 이
동이 적고 한번 노에 입회한
자는 결코 회회하지 않는 것
이 특이한 실상이다. 복화 변
역의 무죄도 없고 양성한 리
다! 출 일출 없려도 없다.
결코하여 가정을 가진다 할지
라도 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오란다와 청년 대자적이
있다. 서구라 하여 있으면서 전쟁의
포종을 당하지 않는 서서이라
에서는 생활에 아 다용하는
일도 볼 수 없고 직업 청년부
이라 하여도 보아 더 좋은 물건
을 생산 하기 위한 것만 문제
되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조
치이나 시설도 여기까지 어떻게
다제이로게 사되일 수 있을까하
는 방법에도 연구 고안을 하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자곤 일은

講座
민주주의
(13)

第六章

피시어박사
銀行 下

사람들이 혼탁(混濁)하여 사업에 대한 정복(征服)의 간성(干性)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주주의 의사를 사회에 있어서서는 모든 사업가들이 자기들이 적당히 보는대신임하게 그들은 운영하도록 해서 상업과 재정거래에 있어서 막되야 한다고 주장 하는것이 더욱 더욱 이용하게 되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주장에 있어 한가지 있는것은 주 정부가 될수 있는것은 주 정부가 잘 의적이 아니고 따라서 임민의 의견 제 一차적 책임은 몇 천 부락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지 않는 때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바도 이 은행을 이용 하고 악독분자들이 많은 사람들 돈 행이 분자하는 몇 백만 회생시켜 가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보려는 것이니

血淚에 젖은 敎會史

教25週年

구
[교로 이제 그리
예수 안에 있는
[는 결코 정죄함
나니
서 八장 일절
교회 김덕성목사

일본에 전도비 예산에 세원도 구주지방에도 목사들을 파견기로 결정하였다. 그해 9월 31일 평양에서 열린 장로목사 박연익이 완성되어 서상운씨는 매 장에 판서지방 전도목사 박연익이 완성되어 서상운씨는 매 서씨의 보조한것은 전종회원 애인으로 활약하였으며 한편으로 논술을 좋리게 한것이다 일본에서는 一八八四년 루미스

은 요구한 성자들의 생명에
대가인 것이다. 성서 번역역사
는 진실로 눈물겨운 역사이다.
오늘은 역사강좌의 시간이다.
반으로 후일로 미룬다.

宣教師信仰基礎

聖書知識

最新刊
福音書異同一覽一三〇圓下65
ヘブル書講義一〇〇圓下20
聖書の讀み方 五〇圓下10
☆ 定價 一部30圓 年三六〇圓(各十共)

聖書の日本

★定例一報(二十四円)年三四八月

人口問題	五〇円
正義・信仰・愛	一五円
基督教とは何であるか	一五円

愛は怒りをこめて

愛は怒りをこめて
阿部行蔵著
一五〇圓
二〇圓
信仰の道とは、いつたいこれとは
な道であらうか？そこではくたちは
いつたいどんな姿勢で歩まねばなら
ないのだろうか。眞摯な求道の記録

三笠書房
東京神田神保町一丁目振替東京22096

永遠の生命

☆ 十月号より一巻と異誌と合併
 ☆ 定価 一部03周年三六〇円各千共
 2部以上一割引・5部以上二割引
 既刊 旧約聖書略註(上)三三頁 九〇〇頁
 既刊 旧約聖書略註(中)二八頁 一〇〇〇頁
 既刊 旧約聖書略註(下)八五〇頁 八〇〇頁
 新約聖書略註(上)一〇〇頁 一〇〇〇頁
 新約聖書略註(下)一〇〇頁 一〇〇〇頁
 神戸市御影局蔵内
 遠 永 の 生 命
 振替 大阪 五八九六